

최원섭의
불교, K-드라마로 만나다

⑥ '동백꽃 필 무렵'(2019)

스스로 부처임을 알면 매일 꽃이 핀다

최근 임상춘 작가의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가 공개되었다. 이 드라마는 1960년부터 지금까지 오애순(배우 이지은)과 양관식(배우 박보검) 부부가 살아온 이야기를 다룬다. 아직 전체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벌써부터 올해를 대표하는 드라마로 꼽힐 것 같은 예감이 들 정도로 반응이 심상치 않다.

임상춘 작가를 대표하는 드라마는 뭐니뭐니 해도 〈동백꽃 필 무렵〉(2019)이다. 탄탄한 스토리와 개성 넘치는 등장인물들 덕에 마지막회 시청률이 23.8%일 정도로 인기도 많았고, 그런 인기를 반영하듯 여러 개의 상을 받으면서 2019년을 대표하는 드라마로 자리매김하였다.

〈동백꽃 필 무렵〉은 어린 필구(배우 김강훈)를 데리고 게장으로 유명한 '옹산'에 들어온 동백(배우 공효진)이 세상의 편견과 맞서고 '까불이'라는 연쇄살인범과도 싸우며 당당히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이다. 그리고 동백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는 주변 사람들의 면면을 보여주는 '평범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기적 같은 이야기'이자 '사람이 사람에게 기적이 될 수 있다'는 진실을 알려주는 드라마이기도 하다.

동백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눅이 들어 사는 것은 어머니 정숙(배우 이정은)에게 버림받고 미혼모로서 혼자 필구를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지 못하고 번듯한 가정을 일구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의 따가운 눈초리 속에 지난 세월을 살아 왔다. 그나마 옹산에서는 처음으로 자신의 방패막이가 되어준 부녀회장 곽덕순(배우 고두심)의 사랑과 격려 속에 살고 있다. 항상 위축되어 있지만 실은 남이 뭐라든 행복을 찾아낼 줄 알고, 불의에 기꺼이 맞설 줄 아는 동백. 이런 동백의 본래 모습을 꺼내어주고 동백의 자존감을 북돋아주는 인물이 바로 덕순의 막내아들 용식(배우 강하늘)이다.

용식은 동백을 향해 항상 "행복해질 자격이 충분히 차고 넘치는 사람이어유"라는 낯간지러운 말을 진심으로 한다. 연민이나 동정이 아니라, 동백이 "얼마나 빛나는 사람인지를" 알아보고 "그렇게 대단한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다. 동백은 이런 용식의 태도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칭찬을 받았다"고 기뻐하면서 "내 걱정해 주는 사람 하나가 막, 내 세상을 바꿔요"라고 한다.

동백이 자신에게 집적대던 집주인 규태(배우 오정세)를 고소하겠다며 적극적으로 바뀌



KBS 수목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 포스터.

세상의 따가운 눈초리 속에 살아온 '동백'
"고맙다"는 용식 덕에 본래 모습 되찾아
서로를 부처님으로 보면 불국토 세계 열려

게 된 것 역시 용식의 깜짝 생일선물 때문이다. 용식이 준비한 축하카드와 동백꽃 장식을 발견한 동백은 처음 받아보는 축하와 찬탄에 목놓아 울고 만다. 사실 이날은 자신이 보육원에 맡겨진 날이고, 정작 동백은 자신의 진짜 생일을 모른다. 하지만 용식은 "생일 모르면 내가 맨날 생일로 만들어 드린다"면서 동백의 34년이 충분히 훌륭하다고 말한다.

다 알다시피 동백은 겨울에 피는 꽃이다. 그런데 동백의 생일인 8월에 왜 동백꽃이 필까?

생일을 모르면 맨날 생일 하자는 용식의 말을 불교적으로 표현하면 중생인 우리가 새삼스럽게 부처가 되었다는 생각을 할 것 없이 항상 부처로 살자는 말이다. 그러니 부처로 산 동백의 지난 34년이 모두 훌륭할 수밖에. 용식의 이런 격려에 비로소 동백도 자신이 진짜 훌륭한 사람이라는 자각을 시작하고 자존감 없고 자신감 없는 사람에서 당당한 사람으로 전환한다. 이는 동백이 스스로가 부처임을 자각하는 '초발심'의 대목이며 그것을 "꽃이 피었다"고 표현하였다. 드라마 제목인 '동백꽃 필 무렵'의 의미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동백이 처음 발심하자마자 깨달음을 이룬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동백꽃이 핀 무렵인 것이다. 보현행으로 보자면 부처인 용식이 또 다른 부처인 동백을 부처님으로 대했기에 자신이 중생인 줄로만 생각하며 부처인 줄을 믿지 않던 동백도 최면과도 같은 용식의 말과 행동에 스스로 부처인 줄을 알고 부처로 살기 시작한다는 의미이다.

〈동백꽃 필 무렵〉은 용식과 동백의 이야기에 더해 향미(배우 손담비)의 죽음과 동백의 목숨을 노리는 연쇄살인범 까불이의 정체를 밝히는 미스터리와 스릴러가 또 하나의 축을 이루고, 동백과 엄마 정숙의 재회와 갈등과 화해에 대한 내용이 더해진다. 또한 두 쌍의 부부, 규태와 자영(배우 염혜란)의 갈등, 종렬과 제시카(배우 지이수)의 이혼 위기 등이 부수적으로 전개되면서 모든 등장인물의 이야기가 흥미진진하게 펼쳐져 주조연의 모든 인물이 각자 자신의 삶의 주인공이고, 부처임을 드러내고 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부처임을 자각하면 서로가 서로를 부처로 보게 되고, 부처들이 사는 불국토의 세계가 열린다. 드라마 초반에 동백이 용식에게 분실물센터에서는 사람들이 늘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데 자신은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장면이 있다. 〈동백꽃 필 무렵〉에서 '고맙다'는 말은 상대의 진가를 완전히 인정하고 존경하는 맥락으로 쓰인다. 중생이 가진 여래의 본성을 발견하는 것을 '고맙다'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하는 동백, 다시 말하자면 자신이 지닌 본래 모습을 발견해주기를 바라는 동백에게 가장 먼저 '고맙다'는 말을 해주는 것은 역시 용식이다. 그리고 마지막회에서 동백이 꿈꾸던 분실물센터 대신 택배 보관소를 운영하며 동네 사람들에게 수시로 '고맙다'는 말을 듣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옹산의 게장골목이 바로 부처가 부처를 만나는 불국토임을 보여준다.

이제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을 보자. 신장이식 수술을 마치고 퇴원한 정숙과 동백이 행복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데, 이때 정숙의 한 마디가 강렬하다. "해피엔딩이고 나발이고, 그냥 아껴 먹으면 맛대가리만 없지, 당장 배고플 때 홀랑 먹어야지, 그게 와따지. 그러니까 나중에 말고 당장 야금야금 부지런히 행복해야 돼." 그리고 동백은 행복은 좇는 게 아니라면서 발을 딱 붙이고 찬찬히 둘러보면 천지가 꽃밭이라는 말을 한다. 천지가 꽃밭이면 꽃으로 장엄한 화엄(華嚴)의 세상이 아닌가.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은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소소한 선의가 모여 기적을 이루는 화엄세계를 설법한 훌륭한 법문이고 드라마 속 '옹산'은 우리가 살고 있는 평범한 세상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그러니 자, 지금부터라도 내 주변 사람에게 얼마나 고마워하고 있는지, 내 마음을 살펴볼 일이다.

〈대행선연구원 연구원〉

민중구제 기반 삼계교 가르침
원광 법사 통해 신라 전해지다



법공 스님의
〈지장십륜경〉 강의

⑪ 신행 선사와 원광 법사

무진장원은 삼계교에 있어서 재정을 유지하는 보다 근원적인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정자들이 무진장원을 탄압(721년)한지 불과 4년여 만에 삼계교 전체 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삼계교 전법의 불꽃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덕종(德宗, 800년)때에는, 측천무후 당시 삭제되었던 삼계목록이 〈정원록〉에 다시 실렸으며, 경종(825년)대에는 화도경원(化度經院)에 금문액(金文額)이의 하사됐습니다.

특히 한반도에서의 전법은, 유형을 달리하면서 전파됐습니다. 삼계교라는 명칭 대신 '지장사상'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회에는 원광 법사로부터 시작되는 삼계교의 전법이 그려지고 있는 〈삼국유사〉 내용을 살펴보려 합니다.

삼계교가 한국불교사에서 한 축으로 이어졌음을 알린 것은 〈삼국유사〉를 통해 삼계교의 실타래를 풀어쓴 민영규 박사(연세대 명예교수)의 공로입니다. 일부 학자 중에도 〈삼국유사〉를 야사(野史)로 치부하여 인정하지 않는데, 〈삼국유사〉야말로 연구할수록 그 가치가 빛나는 훌륭한 사서(史書)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럼, 삼계교와 신라의 원광 법사는 어떠한 인연이 있었는가? 원광 법사는 수나라 통일시기인 589년 진(陳)의 장안에 입성했습니다. 바로 그때 삼계교의 신행 선사가 수나라의 개국공신인 고경(高熲)을 받아들이며 장안의 진적사(이후 화도사)에 들어간 시기와 같습니다.

당시 신행 선사의 모습을 〈속고승전〉에서는 "(신행은) 상주 법장사에서 구족계를 버리고, 친히 노역에 종사하며, 단의(單衣)로 절식하며, 무릇 모든 도속을 비경(悲敬)으로 예(禮)하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족계를 버리고 스스로 노역에 종사했다'라는 이야기는 당시의 상황으로 비추어 보면 청천벽력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신행 선사의 행동은 비전(悲田)과 경전(敬田)으로 근본을 삼았는데, 비전(悲田)이란 소위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고, 경전(敬田)이란 불사(佛事)를 바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승려의 몸으로서 일일일식(一日一食)을 하면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진중한 마음으로 예불하는 자세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며, 승려사회에 노동을 요구한 첫 사례이기도 했습니다.

원광 법사는 기실 신행 선사의 이 같은 행적들을 유심히 관찰하며, 이를 신라에 어떻게 전할까 고민했을 것입니다. 이에 원광 법사가 고안한 것이 '점찰보'라는 것입니다.

원광 법사가 신라에 처음 들여온 것은 〈점찰선악업보경〉에 근거하는 '점찰보 사상'으로, 이는 '점찰보'와 '점찰행법'으로 나눠집니다. '점찰보'는 흔히 말하는 '계 조직'의 성격을 가진 소규모 모임이며 '점찰행법'은 지장보살을 향하여 정진하는 참회 수행적 성격을 지녔습니다. 이 중 '점찰행법'을 통해 지장도량으로서 금산사, 법주사, 동화사가 창건됐다는 건 앞선 회차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원광 법사와 삼계교의 관계는 〈속고승전〉 권13 '의해편' 9에서 확인됩니다.

"특진소우(特進蕭瑀)가 남전에 율량사를 지어 머물기를 청하면서, 육시에 사사공급하기를 변함없었다. 제자 원안(圓安)은 원광이 말하는, 즉 '본국의 왕이 병들어 의사의 치료도 듣지 않아 원광이 돌아오기를 청하여 밤의 두 때에 깊은 법을 설하며 수계참회를 하여 왕이 크게 신봉하였다'는 내용을 차례로 적었다."

이는 원광 법사가 '소우'의 영접을 받아 육시에 사사공양을 받았다는 것인데, 이 '소우(蕭瑀)'는 수나라 탕제황후의 동생입니다. '소우의 딸과 손녀가 삼계교의 비구니가 됐다는 기록을 담은 비문이 있었다'는 금석록(金石錄)에 기록되어있을 정도로 삼계교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원광 법사는 신행 선사의 적멸(594년)이후에도 6년간 장안에 머물렀고, 600년 삼계교 제1차 탄압 당시 신라로 돌아왔습니다.

〈속고승전〉 제19권 '습선편' 제4 승옹전에는 "승옹이 세상에 숨어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사람을 보내 이르기를, '도를 닦아 행이 섰으면, 마땅히 (중생)제도를 우선 할 것이다. 홀로 그 몸만 착하게 한다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다. 널리 이익 되는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밝게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삼국유사〉 권4 '원광서학전'에 반복돼 나옵니다.

원광 법사가 소주 호구산에서 천화(遷化)하려는 것을, 이름도 모르는 신사(信士)가 원광에게 세상으로 내려 갈 것을 권유하며, "지금 법사가 거주하는 이곳은 자리의 행은 될 수 있으나, 이타의 공(功)은 될 수 없다"는 이야기는 삼계교의 승옹과 신라의 원광을 통해 대승불교라는 시대의 풍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송림사 주지〉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공단연등(고리용)
노랑(오렌지) 진분홍 백색 연분홍 금색

전선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LED태양광 솔라
(국산정품)



LED전구 국산인증


고추구 12E 인지구 26E

도량(만월등)조립식 프레임(간편한 설치 및 높낮이 조절)





안전인증 ISO9001 ISO1400 특허청

정직과 신뢰의 불자기업
불제대원산업
BULJE DAEWON CO.LTD

구 입 문 의 031-986-0277~8, 02-2266-2634
032-582-6235~6, 02-2263-2638
문의핸드폰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